

증례

8증례를 통한 숨巖鍼法의 形象醫學的 운용에 관한 고찰

최준영 · 남상수 · 김용석 · 이재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A Study of Eight Cases According to *Hyeongsang* Diagnosis Applying *Sa-am* Acupuncture Therapy

Choi Jun-young, Nam Sang-soo, Kim Yong-suk and Lee Jae-dong

Dept.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porse of this study was to report the availability of *Hyeongsang* diagnosis compensating for visceral pattern identification in applying *Sa-am* acupuncture therapy.

Methods : Eight cases was presented to substantiate the above.

Results :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diagnostic method of *Hyeongsang* medicine by feature such as face, ears, eyes, nose and mouth shape, There are 8 pattern differentiations, including essence family, Qi family, spirit family, blood family, fish type, bird type, beast(running) type and crust(crustacea) type which are correlated with essence deficiency, heat harassing the heart spirit, Qi stagnation, blood stasis, kidney essence deficiency, intense heart fire, liver blood deficiency and lung Qi deficiency in the established visceral pattern identification, respectively. Eight patients was diagnosed by the above *Hyeongsang* 8 pattern differentiations, of whom *Sinjeonggyeok*(kidney reinforcing prescription) was applied to a patient with fish type and essence family to nourish kidney essence, and *Giul* prescription(Qi stagnation prescription) was given to a patient with Qi family for regulating Qi, and *Sanghwa* prscription(ministerial fire prescription) was delivered to a patient with Spirit family to clear the heart fire and tranquilize, and *Sojangjeonggyeok* (small intestine reinforcing prescription) was used for a patient with blood family to nourish blood and remove blood stasis, and *Sinjeonggyeok*(kidney reinforcing prescription), *Simhangyeok*(heart heat clearing prescription), *Ganjeonggyeok*(liver reinforcing prescription) and *Pyejeonggyeok*(lung reinforcing prescription) were utilized for fish type, bird type, beast(running) type and crust(crustacea) type respectively to reinforce the relevant visceral function.

- 본문 중 ●+숫자(예 : ●1)는 각주로서 내용은 참고문헌 뒤에 실었음
- 접수 : 2011. 12. 2. · 수정 : 2012. 2. 4. · 채택 : 2012. 2. 9.
- 교신저자 : 이재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침구과
Tel. 02-958-9208 E-mail: Ijdacu@khmc.or.kr

Conclusions : It was suggested that characteristic diagnostic method of *Hyeongsang* medicine should be helpful for enhancing the accuracy of the established visceral pattern identification, applying *Sa-am* acupuncture therapy more appropriately.

Key word : *Sa-am* acupuncture therapy, *Hyeongsang* diagnosis, Visceral Pattern identification.

I. 서론

舍巖鍼法은 井榮輸經合에 屬한 木火土金水の 五俞穴에 부속된 경혈을 선택하여 自經補瀉原則에 더하여 他經補瀉法을 응용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舍巖道人에 의하여 창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원리는 ‘虛則補其母’의 원칙에 다시 ‘抑其官’하고, ‘實則瀉其子’에 ‘補其響’하는 방법을 응용하여, 自經에서 2혈, 他經에서 2혈을 補瀉하는 것인데, 五邪의 관점에서 相生 相克關係를 臟腑概念에 연관시킨 것이 그 핵심이다¹⁾.

形象醫學은 芝山 朴仁圭에 의해 정립된 한의학의 한 분류로서, 形象醫學이란 存在物의 모든 發顯象인 形色脈證에 따라 病理를 추구하고 병을 치료 예방 保養하는 학문으로 自然人的 形象을 보고 그 속에 내재된 법칙을 적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글로 옮겨 펴낸 학문이다. 形象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膽體-膀胱體, 男女老少, 精氣神血科, 五臟六腑의 形象, 魚鳥走甲類, 六經形 등이다²⁾.

舍巖鍼法은 臟腑의 寒, 熱, 虛, 實을 판별하여 각각 熱, 寒, 正, 勝格을 통해 장부의 기능을 정상화 하여 치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形象醫學 역시 외부로 나타나는 形色脈證으로 장부의 寒, 熱, 虛, 實을 판단하여 치료하므로, 形象醫學의 진단방식이 舍巖鍼法의 운용에 중요한 진단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東醫寶鑑·身形門>을 보면 “形色既殊, 藏府亦異, 外證雖同, 治法迥別”라고 하여 사람의 形과 色이 각기 다르고, 그에 따라 臟腑도 다르므로 외부 증상은 비록 같다고 하더라도 그 치법은 사람에 따라 확연히 달라야 함을 언급하여, 외부의 形과 色이 진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임을 말하였다. 또한 <五臟門>을 보면 五臟의 경우 耳目口鼻의 상태와 皮膚에 發現되는 色, 腠理의 치밀 여부 등을 통하여 五臟의 大小를 판별할 수 있고, 大小에 따라 各臟의 虛實 및 疾病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六腑의 경우

도 얼굴 및 身體에 나타나는 各腑의 外候를 통하여 各腑의 상태를 판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물론 形象醫學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形象과 色만을 통하여 診斷하는 것이 아니고 形色脈證의 合一을 통하여 진단하고 이에 따라 처방이 이루어지듯이 舍巖鍼의 운용에 있어서도 形象 및 色을 참고로 하여 脈診, 腹診, 問診, 門診, 舌診 등 한의학의 여타 진단방법을 동원하여 진단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形象的 특징을 참고하면 쉽게 진단의 방향을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진단에도 결정적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 및 보고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形象을 분류하는 방법 중 精氣神血科 및 魚鳥走甲類를 중심으로, 이에 따른 舍巖鍼法 치험례와 그 고찰을 통하여 形象醫學과 舍巖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증례

1. 魚鳥走甲類 分類에 의한 治驗例

1) 치험례 1 : 김○○. 女. 51세

- ① 形象 : 魚類, 膀胱體. 관골이 크고 입이 크며 입술이 두텁다. 氣科. 陽明形
- ② 色 : 面垢濁(얼굴에 거뭇거뭇 때가 낀 듯 濁하다.)
- ③ 脈 : 浮虛脈
- ④ 과거력 및 기타 : 일 많이 함 (식당일). 평생 일을 무척 많이 했음. 항상 몸이 아파 여기저기서 鍼治療를 많이 받음
- ⑤ 病名 : (M5456)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M2550) 관절통, 다발부분
- ⑥ 症狀 : 腰痛을 중심으로 우측 골반과 허벅지 슬관절까지 전체적으로 쑤시는 듯한 통증 지속됨. 밤이면 잠을 못잘 정도로 아픔. 양쪽 손목도 아프고 좌측 발가락 마디마디와 발목의 통증 등

반. 어깨도 아픔. 소화가 잘 안됨. 변비는 없음.

⑦ 처방 및 경과

2011년 9월 27일 : 腎正格(左側)

9월 28일 : 痛症 절반 정도로 감소

다시 腎正格 刺針

9월 29일 : 腎正格 刺針

9월 30일 : 痛症 많이 줄고 일하기 편해짐. 腎正格 자침

10월 4일 : 顔色 맑아지고 호전됨. 통증은 많이 줄었음. 현재 좌측 슬관절 통증과 발가락 통증정도만 있음. 지난 주말(10월 2일)부터 대변볼 때 피가 조금씩 비치고 엉치가 무거움. 일단 腎正格(右側) 다시 자침

10월 7일 : 顔色이 다시 어두워짐. 症狀도 惡化 다시 온몸이 아픈데 특히 우측 하지 통증이 심하다고 함. 問診해보니 1일 전 과식하고 잤다고 함. 腎正格(左側) 자침

10월 12일 : 소화 조금 호전. 아직 잘 안됨. 우측 하지를 들면 우측 허리가 아픔. 먼저 중완자침 후 腎正格(左側) 자침. 자침 후 다리를 들어 보라 하니 통증 소실

10월 13일 :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편해짐. 우측 발목 근처의 통증과 좌측 足趾痛症만 남음. 中腕 자침 후 腎正格 자침

2) 치험례 2. 이○○. 남. 75세

① 形象 : 鳥類, 膽體. 눈이 크고 발달. 안경 착용. 얼굴이 화사하고 붉으며 눈빛이 강함

② 色 : 色赤

③ 脈 : 洪脈. 심한 不整脈(두 번 뛰고 한 번 쉬거나, 한 번 뛰고 한 번 쉬는 徐脈)

④ 과거력 및 기타 : 대기업 CEO. 젊어서 신경을 많이 썼고 지금도 많이 쓰는 편. 혈압약, 아스피린, 고콜레스테롤혈증치료제, 수면유도제, 혈당약 복용 중. 2011년 1월 24일 우측 腰脇部 痛症으로 인해 本院에서 治療(주로 膽正格과 蜂藥鍼으로 治療)

⑤ 病名 : (R0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장박동 이상 (R509) 상세불명의 열

⑥ 症狀 : 不整脈. 발은 차고 시리면서 등으로 열이 후끈거리고 올라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足低部에 麻木感(남의 살이 붙어 있는 느낌). 가슴이 답답하면서 울렁거림.

⑦ 처방 및 경과

2011년 9월 28일; 心寒格 자침

9월 29일 : 열감 감소. 약간 오르는 듯하다가 가라앉음. 냉마사지 안하고 잠. 다시 心寒格 자침

10월 1일 : 다시 心寒格 자침

10월 4일 : 발이 시리고 발바닥에 뭔가 붙어있는 듯한 느낌. 心腎俱虛方 자침

10월 5일 : 호전. 발바닥저림증상은 발가락까지만 있음. 心腎俱虛方 자침

10월 6일 : 아직 熱이 조금씩 오름. 胃의 下氣作用을 빌어 上氣된 氣運을 下降시키기 위해 胃正格으로 자침

10월 7일 : 별로 반응 없었음. 저녁 8시만 되면 등이 뜨거워진다고 함. 心寒格 자침

10월 8일 : 다소 호전됨. 가볍게 더운 느낌 정도. 心寒格 자침

10월 11일 : 전체적으로 熱感은 半 정도로 호전. 발바닥 감각 이상도 발끝만 조금 남아 있음. 心寒格 자침

3) 치험례 3 : 엄○○. 남. 71세

① 形象 : 走類, 膽體. 눈썹이 진함. 蘭台廷尉가 틀리고 法승이 발달. 코가 아래위로 길며 눈꼬리가 살짝 올라감.

② 色 : 검은편

③ 病名 : (R006) 딸꾹질 (G470)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④ 症狀 : 내원일 약 일주일 전까지 딸꾹질을 10여일 정도 심하게 함. 현재는 멈춘 상태이나 명치 밑이 딸꾹질을 할 것처럼 딱 막혀서 답답함. 딸꾹질을 시작 한 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음. 가슴이 답답하고, 목덜미가 뻐뻐하고, 다리에 힘이 전혀 없음.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전혀 없음. 대소변은 정상

⑤ 過去歷 및 其他 : 대학교 때 정신적으로 충격 받은 이후 살이 찌지 않음. 평생 55kg. 신경이 예민하여 걱정거리 있으면 빠져나오지 못함. 2003년 甲狀腺 結節除去手術. 현재 양약 복용 중. 증권회사 퇴직 후 선물거래중

⑥ 處方 및 經過

2011년 8월 8일 : 肝正格

黃耆十補湯 20貼

8월 13일 : 鍼治療 후 바로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명치가 시원해 졌다고 함. 딸꾹질 역시 재발 없음. 8월 10일경부터 한약복용시

작. 肝正格

8월 17일 : 잠도 잘 자고 消化不良 및 心下痞悶感 모두 호전. 다리에 힘도 돌아옴. 肝正格

8월 20일 : 신경만 조금 쓰고 나면 다리에 힘이 다소 없어짐. 肝正格

8월 24일 : 肝正格

8월 27일 : 체반 증상 모두 호전. 다리에 힘이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다고 함. 계속 침치료 권유. 肝正格

8월 30일 : 다리에 힘없는 것만 조금 남음. 신경쓰면 어지러운 느낌(先物만 생각하면 어지러움). 肝正格

腎氣丸加鹿茸 20貼 처방

9월 3일~9월 28일 : 2-3일 간격으로 肝正格 자침.

10월 1일 : 吞酸症狀-쓴물이 넘어오면서 목이 따거옴. 肝正格 자침

4) 치험례 4 : 정○○. 남. 54세

① 形象 : 甲類(어깨가 발달하고 목이 짧은 편), 이마주름, 氣科, 뼈대가 굵은 편

② 色 : 많이 그을림. 탁함

③ 病名 : (L409) 상세불명의 건선

④ 症狀 : 乾癬-3년 전 발병. 발병 후 양방병원에서 1년여 동안 양약 복용.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됨. 이후 한의원에서 약 6개월 정도 한약 복용하여 약간 호전되는 듯하다가 6개월 전부터 다시 악화. 이후에는 같은 한약 복용해도 호전되지 않음. 온몸이 가렵고 角質이 심하게 일어나 남. 현재 팔 다리 쪽으로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 있고, 곳곳이 갈라져 피가 맺혀 있음. 배부 복부 전체적으로 붉은 반진이 올라와 가려움. 최근 들어 몸이 엄청 춥고 몸속에서 冷氣가 올라오는 느낌이 나며 땀은 전혀 나오지 않음. 消化 大小便 등은 거의 문제 없음

⑤ 과거력 및 기타 : 어부-갯벌에서 바지락 캐는 일. 10년 전 작업 중 좌측 2·3·4指 절단됨. 발병 전 술을 많이 마셨음

⑥ 처방 및 경과

8월 17일 : 肺正格 후 小腸正格

8월 18일 : 각질이 많이 떨어지고 가려움증은 줄었음. 갈라져 피땀한 곳도 거의 없어짐. 肺正格

8월 19일 : 가려움증 현저히 호전됨. 각질도 손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肺正格. 봉독약침(sweet BV 1cc; 谷池·三里·

肺俞·脾俞·肩髃 兩側 分入)

8월 20일 : 피부색이 좋아짐. 본인도 빨리 호전되어 놀랍고 좋아함. 肺正格. 봉독약침(sweet BV 2cc; 상기 혈위 외에 손의 증상이 심하여 八邪穴과 陽谷·陽溪에 刺入. 약물치료를 위하여 瓊玉膏 15일 분 투약. 거주지가 전남 여수인 관계로 일주일에 한번만 치료하기로 함

8월 27일 : 몸과 팔 피부는 거의 호전됨(목욕탕을 갈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함)

손은 아직 각질이 심하고 갈라져 있으며 갈라진 곳에 피가 배어 있음.

가려움증은 8월 24일경부터 거의 없다고 함. 다시 肺正格 자침 후 小腸正格 자침.

蜂毒藥鍼(sweet BV 1cc; 谷池·三里·肺俞·脾俞·肩髃 兩側 分入. BV 1cc; 八邪穴·陽池·陽谷·陽溪)

9월 3일 : 손만 가렵고 각질이 조금 남아 있음. 갈라지거나 피가 배어 있는 곳은 없음. 肺正格

蜂毒藥鍼(sweet BV 1cc; 谷池·三里·肺俞·脾俞·肩髃 兩側 分入. BV 1cc; 八邪穴·陽池·陽谷·陽溪)

9월 17일 : 몸의 건선은 다 좋아짐. 바다물에 담고 나면 손이 나빠짐. 발도 작업 후 양말 벗으면 심하게 가려움(외과측으로 약간의 상처가 나 있음) 혈흔은 없음. 肺正格·小腸正格

9월 24일 : 손과 발 모두 호전됨. 外踝部에만 약간 각질이 있고, 양말신고 작업하고 나면 가려운 정도

2. 精氣神血科 分類에 따른 治驗例

1) 치험례 5 : 김○○. 남. 48세

① 形象 : 精科. 膀胱體

얼굴이 둥글고 이마가 벗겨짐. 耳目口鼻도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함. 머리가 큰 편

② 色 : 色黑

③ 과거력 및 기타 : 은행부지점장. 과거 술을 많이 마셨음. 과로도 많이 함. 2009년부터 혈압약 복용

④ 病名 : (I69306) 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⑤ 症狀 : 2011년 1월27일 뇌경색 발병. 10일 정도 입원 후 퇴원. 현재 후유증으로 인한 우측 偏麻痺. 언어가 다소 어눌(처음에는 심했으나 조금 호전된 상태). 2월부터 가끔 뜬치료 받음

⑥ 처방 및 경과

9월 27일 : 腎正格 刺針

이후 10월 7일까지 : 腎正格 자침

오른손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주먹이 조금씩 쥐어짐)하고 다리도 걷기 편해짐

10월 11일 : 손과 다리에 힘이 아주 좋아짐. 걸을 때 다리가 휘청거렸으나 감소됨.

腎正格 자침

2) 치험례 6 : 박○○. 여. 52세

① 形象 : 氣科, 膽體, 走類

관골이 아주 발달되고 상대적으로 턱과 이마가 좁은 卯酉形 氣科. 얼굴에 비해 코가 발달

② 色 : 萎黃함

③ 脈 : 弦脈

④ 過去歷 및 其他 : 10여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가슴통증 발병. 검사상 이상이 없고, 불면증 있음.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복용함

⑤ 病名 : (R074) 상세불명의 흉통

(G470)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⑥ 症狀 : 胸痛. 가슴이 막힌 듯 답답하고 머리 쪽으로 뭔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음. 붕 뜬 느낌. 불면증 심함. 저녁이면 불안 초조. 집에 있으면 더 답답함. 소화가 안 되고 기운이 없음

⑦ 처방 및 경과

2011년10월 7일 : 氣鬱方

10월 8일 : 가슴에 뭔가 쑥 내려가는 느낌 있었음. 저녁 되니 다시 막힌 느낌 재발. 잠은 수면제 먹고 잠.

氣鬱方刺鍼 후, 三焦正格 추가

10월 10일 : 가슴통증 20% 정도 호전. 잠은 아직 수면제 먹고잠. 氣鬱方刺鍼

10월11일 : 가슴 통증 50% 정도 好轉.

氣鬱方 다시

10월12일 : 氣鬱方 刺鍼. 저녁이면 불안한 症狀 있어 膽正格 추가

3) 치험례 7 : 윤○○. 여. 71세

① 形象 : 神科. 膽體. 얼굴이 역삼각형. 얼굴이 희면서 붉고 눈꼬리가 올라감

② 色 : 面赤

③ 脈 : 洪數脈

④ 과거력 및 기타 : 우울증약(젊어서부터 복용), 혈압약, 콜레스테롤저하제, 수면제 등 복용함. 평생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지금도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싸우려고만 해서 집에 있는 것이 두려움. 집에 있으면 덤고, 무슨 생각만 하면 열이 오르면서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일을 못하고 누워야 함

⑤ 病名 : (G470)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⑥ 症狀 : 不眠症, 心悸怔忡, 胸悶, 煩熱感, 驚悸, 面赤, 上熱感, 眩暈, 下肢無力, 慢性結膜炎, 眼瞼赤爛, 手顫症, 消化不良

⑦ 처방 및 경과

2010년6월 14일 : 相火方

6월 17일 : 上熱感이 감소됨. 침맞은 날은 6시간 정도 잠

6월 21일~8월 28일 : 2~4일 간격으로 총 24회-주로 相火方자침

心悸怔忡, 胸悶, 煩熱感, 驚悸, 面赤, 上熱感, 眩暈, 下肢無力증상 등 전반적 호전.

다리에 쥐가 나서(7월 31일) 膽正格 刺鍼. 眼瞼赤爛症狀으로(8월 20일) 熱痰方刺鍼

8월 30일 : 슬관절내측통증 心寒格 자침

2011년 1월 10일 : 治療 중단 후 症狀 다시 재발. 이번에는 嘈雜症狀 추가. 相火方으로 다시 자침.

1월 10일~10월 12일 : 월평균 8~9회 정도 지속적으로 내원. 주로 相火方. 가끔 眼瞼赤爛症狀이 심하면 熱痰方. 다리에 쥐가 나면 膽正格 등 혼용. 가끔 신경졸 일이 있으면 못자기도 하고 새벽에 일찍 깨기도 하나 수면제 복용하지 않아도 6시간 정도는 잠. 心悸症狀 등은 많이 호전. 아직 眼瞼赤爛증상은 수시로 나타남

4) 치험례 8 : 정○○. 29세. 미혼

① 形象 : 血科(地積象). 膽體. 얼굴이 화사하면서 약간 붉은색. 이마보다는 턱이 다소 발달한 듯한 地積象의 얼굴(氣科로 보기에 코가 발달하지 않았음). 人中이 짧음

② 色 : 色白. 약간 붉다.

③ 脈 : 緩弱脈

④ 과거력 및 기타 : 주말마다 술을 많이 마심.

Table 1. Characteristic of the cases

| 증례 | 病名 | 形象診斷 | 舍巖鍼處方 | 竝行治療 | 治療횟수 |
|-----|--|----------------|-------------------------|---|------|
| 증례1 | (M5456)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M2550) 관절통, 다발부분 | 魚類, 膀胱體 | 腎正格 | (或加 中脘) | 8회 |
| 증례2 | (R0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장 박동이상 (R509) 상세불명의 열 | 鳥類, 膽體 | 心寒格 (心腎俱虛方) (胃正格) | 없음 | 9회 |
| 증례3 | (R006) 딸꾹질 (G470)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 走類, 膽體 | 肝正格 | 黃芪十補湯 20貼 腎氣丸加鹿茸 20貼 | 19회 |
| 증례4 | (L409) 상세불명의 건선 | 甲類, 氣科 | 肺正格 (或合小腸正格) | 蜂毒藥鍼 (sweet BV or BV 25%; 谷池 · 三里 · 肺俞 · 脾俞 · 肩髃 · 八邪穴 · 陽池 · 陽谷 · 陽 溪 分입) 瓊玉膏 | 8회 |
| 증례5 | (I69306) 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 精科, 膀胱體 | 腎正格 | 없음 | 7회 |
| 증례6 | (R074) 상세불명의 흉통 (G470)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 氣科, 膽體, 走類 | 氣鬱方 (三焦正格) (膽正格) | 없음 | 5회 |
| 증례7 | (G470)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 神科, 膽體 | 相火方 (膽正格) (熱痰方) | 없음 | 142회 |
| 증례8 | (M169) 상세불명의 고관절증 | 血科(地積象), 膽體 | 小腸正格 (肝正格) | 紅花藥鍼 (或加 三陰交) | 13회 |

⑤ 病名 : (M169) 상세불명의 고관절증

⑥ 症狀 : 左側 股關節의 痛症-股關節에서 膽經라인으로 아프면서 앞쪽으로 서혜부의 통증도 있음- 고등학교때부터 지속적으로 아팠음. 腰痛동반. 眩暈 頭痛. 추위를 많이 탐. 최근 긴장하면 多汗. 生理量이 적었으나 최근 주기 길어지면서 양이 많아짐. 소화 잘 안됨-많이 먹으면 힘들고 음주 후 속이 아픔. 舌微赤

⑦ 처방 및 경과
2011년 7월 2일~7월 16일 직장이 멀어 일주일에 1회만 치료.
膽正格 3회 자침-자침 후 호전 2~3일 후 다시 악화됨을 반복
7월 30일 : 여전히 痛症 있음. 생리시작 생리양이 많아 힘들
小腸正格 加 三陰交 刺鍼
8월 6일 : 좌측 股關節痛症 현저히 호전됨
右側이 약간 아픈 듯한 느낌. 다시 小腸正格 자침
8월 13일 : 골반 양측이 모두 많이 편해짐. 식욕도

좋아지고 피로도 덜 느끼고 소화도 잘됨
8월 20일 : 好轉. 職場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骨盤이 약간 아픈 정도만 남음.
紅花藥鍼 1cc 양측 小臀筋과 腰方形筋 中心으로 硬結點에 分入. 小腸正格 자침
9월 3일 : 과음 후 속쓰림. 脾正格 자침
9월 10, 17, 24일 : 좌우 돌아가면서 조금씩 아픈 것이 없어지지 않아 脾正格 3회 자침
9월 29일 : 左側만 조금 아픔. 肝正格, 小腸正格
10월 8일 : 전체적으로 많이 호전. 무리하거나 피로하면 아픈 정도만 남음. 肝正格, 小腸正格

Ⅲ. 고찰

조선 중기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舍巖鍼法은 陰陽五行의 원리에 입각하여, 臟腑의 허실에 따른 鍼灸 補瀉法을 相生關係뿐만 아니라 相剋關係까지 結合시키고 여기에다 自經과 他經補瀉法을 結合시켜 臨

床에 활용하도록 창시되었다. 그러나 舍巖鍼法은 1900년 이전에 활자화시켜 출판된 적이 없이 250년 동안 필사로 그 내용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필사본의 내용을 보면 舍巖 자신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치료편과 芝山の 경험방으로 보이는 경험편이 합본되어 내려오고 있어³⁾ 후학자들의 소중한 지침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舍巖鍼을 활용하다보면 제한된 결과론적 설명이 대부분인 필사본의 내용만 가지고는 임상적응에 어려움을 많게 되기 때문에 결국 舍巖鍼 운용의 성패는 필사본의 내용을 잘 숙지함에만 있지 않고, 전반적인 한의학의 생리 병리적 지식의 여부에 많이 左右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간 한의학이론에 舍巖鍼을 결부시켜 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舍巖鍼을 六氣論의으로 해석하기도 하였고, 四象體質, 八體質 등 여러 가지 體質論과 결부시켜 운용하기도 하였다.

이번 보고 역시 舍巖鍼의 그러한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하는 시도로서, 인체를 存在物로 보고 存在物의 發顯象인 形色脈證에 따라 병리를 추구하고자 질병을 치료하는 形象醫學的 관점을 일부 도입하여 舍巖鍼 운용 시 寒熱虛實診斷의 단서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形象醫學에서는 얼굴형에 따라 精氣神血科를 나누고, 耳目口鼻의 기능에 따라 魚鳥走甲類를 나누며, 눈과 코의 氣勢에 따라 六經形을 나누며, 여기에 皮膚色과 脈, 男女, 年齡, 계절기후와 장소, 방위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등을 종합하여 五臟六腑의 허실을 나누어 치료하는데 이러한 관점을 舍巖鍼法 운용 시 적용시키면 寒熱虛實을 판단하여 正勝寒熱格을 운용하는 데 적절한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중 魚鳥走甲類와 精氣神血科의 분류를 통해 臟腑의 寒熱虛實을 진단하여 舍巖鍼을 운용한 치험례를 통해 形象醫學的 진단과 舍巖鍼法을 결합시켜 보고자 한다.

지상에는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생존하고 있으며 이를 대별하면 魚類, 鳥類, 走類, 甲類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形象이 비슷하고 닮았으며, 공통된 생리와 조직계통도 유사하고, 살아가는 생존방식도 비슷하며 닮았고 변화해가더라도 일정한 기준과 순차에 따라서 다소 차등이 있을지언정 모든 것이 비슷하다. 또한 이들은 五臟六腑의 구성방식도 비슷하며 운동방식도 닮았다²⁾. 이러한 생물의 특성을 인체에 대입하여 인체를 역시 魚類, 鳥類, 走類, 甲類류로 나누게 되는데 그 특성상 魚類는 腎, 鳥類는 心, 走類는 肝, 甲類는 肺가 각각 발달되었으며, 그에 따라 각기 다른 형상, 행동방식, 성정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특정장부가 ‘발달

했다’, 혹은 ‘크다(大)’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즉 발달된 臟腑를 너무 써서 해당 臟腑의 正氣가 虛奪되어, 해당 臟腑의 虛證이 나타나기 쉽다는 의미와, 외부에서 風寒暑濕燥火의 邪氣가 들어올 때 발달된 臟腑가 가장 먼저 그 邪氣를 받으므로 그 臟腑가 먼저 實해지기 쉽고, 또한 飲食起居陰陽喜怒의 부적절로 인해서 내부에서 邪氣가 발생할 때 역시 해당 臟腑에서 가장 먼저 邪氣가 發生하므로 역시 그 장부가 實해지기 쉽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특정 臟腑가 ‘發達했다’, 혹은 ‘크다’는 것은 고정적으로 그 장부가 實하거나 虛하다는 의미가 아닌 正氣의 상태, 邪氣의 強弱에 따라 虛證 혹은 實證이 해당 臟腑에 나타나기 쉽다는 의미이다.

魚類는 물고기처럼 입이 발달한 형태로 水의 氣運이 많아 水體라고도 한다. 대체로 얼굴이 검고 눈이 동그하며 입술이 두툼하고 약간 튀어나온 듯 보인다. 머리가 영특하고 行動이 느린 듯하면서 재빠르며 겁이 많고 잘 놀란다. 腎臟이 발달하여 腎臟과 관련된 病이 오기 쉽다. 또한 헛배가 부르고 消化가 잘 안되며, 조금 피곤하면 허리가 아프고 뒷목과 어깨죽지가 아프고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가 많다²⁾. 어류는 그 本治가 補精補氣이므로⁴⁾ 주로 腎正格을 운용하고 腎陽虛衰인 경우 腎熱格, 腎陰虛인 경우 腎寒格을 쓰며 精血의 휴손이 심한 경우 肝正格도 운용할 수 있다.

치험례 1의 환자는 주소증이 腰痛을 중심으로 한 전신의 關節痛症이었는데, 形象的 특징이 魚類이며 관골이 발달¹⁾하였고 面垢였으며 평소 일을 많이 하여서, 精氣가 虛脫되어 온 腎勞症으로 診斷하여, 補精補氣을 위해 腎正格으로 치료를 시작하였다. 치료 후 통증이 빠르게 소실되고 面垢증상이 좋아지는 반응을 보였다. 본래 소화기 잘 안되었고 치료기간 중 과식으로 인한 食積으로 인해 症狀의 악화가 있었으나, 그 本治인 腎正格을 계속 刺鍼하여 痛症, 소화장애를 비롯한 제반 증상이 빠르게 해소되었다. 《東醫寶鑑·虛勞》에 보면 “...腰背胸脇筋骨引痛...腰背拘急, 百節痠疼...”이라 하여 腰痛을 비롯한 全身關節痛症을 虛勞의 한 症狀이라 하였다. 또한 ‘五勞’中 ‘腎勞’를 ‘精損’이라고 보았으며 그 症狀를 “腰脊痛 遺精白濁 極則 面垢脊痛”이라 하였고⁵⁾, 《舍巖鍼灸正傳·虛損》中 ‘腎虛’에 腎正格을 제시하고 있다⁶⁾. 이처럼 形象醫學的 진단방법은 일반적 臟腑辨證과 일치하며 舍巖鍼 운용 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臟腑의 虛實을 판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鳥類는 눈이 동그랗고 입술이 작고 얇은 형태로 火의 氣運을 많이 받아 火體라고도 한다. 턱부위가 좁고 뾰족해 보이며 가슴이 새가슴인 경우가 많다. 항상 잘 웃고 머리회전이 빨라 일을 시작하면 신속정확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성격이 급하면서도 정확성을 추구하므로 마음이 항상 편치 못하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는 등의 심장병 신경성 질환이 잘 온다²⁾. 鳥類는 그 本治가 滋陰降火⁴⁾이므로 心寒格으로 음혈을 보하면서 화를 내려주고, 心勝格으로 心火를 瀉하면서 陰血을 보해주고 神志를 안정시키며, 심기가 부족한 경우 心正格을, 心膽이 모두 虛한 경우 膽正格을 주로 운용한다.

치험례 2의 환자는 일반적으로 不整脈의 경우 脾正格이나 膽正格, 心正格이 운용되는데 鳥類라는 특성상 心寒格으로 먼저 자침하였다. 실제로 이 환자는 항상 노심초사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평소에도 불면증 등 鳥類에게 나타나는 신경성 질환이 있었다. 자침 후 熱感이 내리고 不整脈이 다소 소실되는 반응을 보였으며 침치료 후에는 마음이 편안해 진다고 호소하였다. 치료 도중 발이 찬 것과 발바닥에 감각이상을 없애기 위하여 心腎俱虛^{7,2)}으로 자침하였고, 발바닥 감각이상은 80% 정도 호전되었으나 背部 熱感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 외 胃正格 역시 큰 효과가 없었다. 陰血이 부족하고 心臟에 火가 잘 오르는 鳥類의 특성을 舍巖鍼에 적용하여 치료한 예이다.

走類의 경우 말처럼 잘 달리고 얼굴이 가름하게 생기며 눈꼬리가 올라가고 코가 길며 몸에 비해 팔다리가 길고 옆구리가 길며 털이 많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木의 기운이 많아 늘씬한 체형으로 木體라고도 한다. 달리기를 비롯해 운동을 잘하며 인정이 많고 목소리가 크고 념새를 잘 맡는다. 하지만 성질이 급하고 火를 잘 내는 경향이 있다²⁾. 肝이 발달하여 肝과 관련된 병이 잘 오며 筋肉疾患, 류머티즘이나 옆구리, 허리, 다리병이 오기 쉽다. 그 本治가 淸熱瀉濕⁴⁾, 滋血養筋이므로 肝正格을 주로 운용하고, 肝火가 動하거나 肝實證이 나타난 경우 肝寒格이나 肝勝格을, 肝氣가 亢進으로 인해 脾氣가 虛해져 있는 경우 脾正格을, 濕熱이 너무 성한 경우 大腸正格을 운용하기도 한다.

치험례 3의 환자 경우에 《舍巖鍼灸正傳·呃逆門》에서는 呃逆을 氣逆上衝으로 인한 呃逆, 肝氣부족으로 인한 風呃, 心氣不順으로 인한 火呃, 脾氣虛寒으로 인한 濕呃, 寒氣所傷으로 인한 冷呃 등 5가지로 분류⁶⁾하여 치료하고 있다. 하지만 그 증상만으로 위 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위 환자는 走類이며 눈썹이 발달³⁾ 되어 있어 肝氣不足으

로 인한 風呃로 보고 간정격으로 치료를 시작하여 呃逆뿐 아니라 心下痞悶 不眠症 下肢無力症 眩暈 등 다른 증상도 모두 소실, 혹은 거의 호전되었다. 치료 말미에 吞酸症狀이 있었으나 역시 《舍巖鍼灸正傳·吞酸門》의 肝熱酸, 心熱酸, 食熱酸⁶⁾ 세 가지 證候 中 肝熱酸으로 보고 肝正格을 계속 자침하여 역시 증상이 완화되었다.

甲類의 경우 거북이처럼 목이 짧고 어깨가 넓게 생긴 형태로 귀가 발달하였으며 金의 氣運이 많아 金體라고도 한다. 얼굴이 넓적하게 생기고 피부가 흰 편으로, 肺가 발달하여 肺와 관련된 호흡기계통병이 잘 온다. 감기에 걸려도 기침을 유난히 많이 하며 어깨가 자주 아프고 우울증에 잘 걸리고 피부병이 생기기 쉽다²⁾. 甲類는 그 本治가 解鬱消痰⁴⁾이므로 肺正格을 통해 補肺順氣하며 鬱症이 심한 경우 肺勝格으로 통해 消痰시켜주고 氣鬱方으로 解鬱하기도 한다.

치험례 4의 환자는 甲類이고 이마에 주름이 많은 것으로 보아 肺가 虛⁴⁾한 것으로 보고 肺를 보하는 肺正格으로 먼저 자침하였다. 또한, 첫날에는 살이 갈라지고 피와 진물이 맺혀 있어 小腸正格을 함방하였다. 1회 자침 후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었으며 추가로 肺正格만 지속적으로 자침 후 봉독요법과 약물치료를 병행하였다.

瓊玉膏는 洪遵의 《洪氏集驗方》⁸⁾에서 “養陰潤肺 治虛勞 乾咳 咽燥咯血”이라 언급되었고, 《東醫寶鑑》에서는 “填精補髓⁵⁾” “生精補氣⁵⁾” 하는 약이라 하였고 形象醫學에서는 주로 ‘뼈대가 굵은 사람이 酒色에 傷하였거나⁹⁾, ‘精氣不足者, 津液不足者, 勞瘵症 귀 코가 큰 노인에게 다용⁹⁾’하는 처방이다.

肺正格은 그 처방구성상 특징이 직접적으로 肺의 氣를 補하기 보다는, 肺의 津液과 陰精을 補하는 작용이 강하므로 이러한 肺正格의 작용과 가장 유사한 처방이 바로 瓊玉膏이므로, 침치료의 효과를 확인 후 그에 맞는 약물을 선택하여 투약하여서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精氣神血은 人身의 근본요소로서 유전인자요 존재물의 씨앗이다. 사람을 種子라는 관점에서 보면 圓形, 方形, 天垂象, 地積象의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으니 이것을 각각 精科, 氣科, 神科, 血科라고 명명한다¹⁰⁾.

精科는 얼굴이 둥글다. 실제로 精科는 軟하고 氣虛 濕痰한 속성 때문에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움직이기 싫어하는 모순을 배재하기 위하여 둥근 圓形으로 만들어 잘 응집하고 動하도록 성형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精이 너무 軟化되어 固情이 안되

며 반대로 너무 굳혀지면 精이 마르게 된다¹¹⁾. 성격도 등글등글 모나지 않으며 낙천적으로 생활한다. 웬만한 큰 일이 아니면 크게 상심하거나 고민하는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 때문이다¹²⁾. 脾胃機能이 좋기 때문에 잘 먹는다. 하지만 잘 먹기 때문에 의외로 食積이 잘 생기기도 한다. 기본 병리는 精漏泄, 陽虛, 精 부족이며 遺精 夢泄 腰痛 糖尿 등의 病症이 주로 나타난다. 한편 과도한 凝集작용으로 인하여 濕熱에 의한 증상, 즉 浮腫 關節痛症 등이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기본처방은 腎氣를 강화하는 腎正格⁵⁾을 중심으로 하여, 腎熱格⁶⁾, 腎寒格⁷⁾ 등을 辨證에 따라 運用하며 濕熱이 성한 경우 大腸正格⁸⁾, 脾勝格 등 濕熱을 다스리는 처방과 脾正格, 濕痰方^{3)·9)} 등 濕痰을 다스리는 처방이 運用될 수 있다.

치험례 5의 환자는 精科이며 발병 전 過勞와 음주를 많이 하여 腎臟의 精氣가 虛損되고 腦髓가 부족해져 증풍이 온 것으로 보고 먼저 腎正格으로 腎臟의 精氣를 補하였다. 7회 刺鍼 後 好轉反應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9회 자침 후에는 머리가 큰 것은 특히 腎陽虛로 보기 때문에 腎熱格으로 바꾸어 지속적으로 자침하여 좋은 경과를 보였다.

氣科는 얼굴이 角이진 形이다. 실제로 氣科는 氣의 속성 때문에 부지런히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있다. 氣科는 氣가 흐트리기만 하고 모을 줄 모르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하게 하는 方形으로 成形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氣가 方形의 속성에 따라 너무 靜하게 되면 氣滯가 되고 너무 흩어지면 氣부족이 생기게 될 것이다¹¹⁾. 기본 병리는 氣鬱, 氣滯에 의한 九氣, 七氣, 中氣, 梅核氣 등과, 不眠症 등 신경성 질환이 많고 특히 여자의 경우 손발과 하복부가 차고 대소변이 좋지 않으며 癩癩, 疥癬 등의 질환이 많다. 또한 지나친 발산으로 인하여 氣虛證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기본처방은 氣鬱方^{3)·10)}, 痰飲方^{3)·11)}, 痰眩方^{3)·12)}, 氣嗽方¹³⁾, 肺勝格, 三焦正格^{7)·14)} 등이며 氣虛證이 나타나는 경우 肺正格을 사용한다.

치험례 6의 환자는 氣科로서 관골이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턱과 이마가 좁은 卯酉形 氣科¹⁵⁾로서 主所症은 胸痛이고 그 외 불면증과 소화장애 등이 나타나 있었다. 일반적으로 胸痛은 膽正格이나 胃正格, 脾正格이 일반적이거나 이 환자의 경우 氣科이기 때문에 氣의 鬱滯에 의한 통증으로 보고, 먼저 氣鬱方으로 자침하였다. 자침 후 가슴에서 뭔가 쑥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으며¹⁶⁾ 치료가 거듭되면서 점차 호전되었으며 主所症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증상도 빠른 消失을 보

였다.

神科는 얼굴이 역삼각형인 天垂象이다. 실제로 神科는 긴장을 잘 하여 七情鬱結이 많고, 마음을 편안히 하면 사리를 잘 판단하는 총명함이 있다. 火의 속성대로 지나치게 緊張하여 七情이 鬱結되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해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키는 天垂象을 成形한 것으로 이해된다¹¹⁾. 기본병리는 七情鬱結이나 痰火, 火盛陰虛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驚悸, 怔忡, 健忘, 不眠, 癲癩, 癲狂 등이다. 따라서 기본처방은 心火를 끄고 血을 보해주는 心寒格, 過乘한 心氣를 안정시키는 心勝格¹⁷⁾, 心虛를 補하는 心正格, 心膽虛怯을 치료하는 膽正格, 健忘을 치료하는 脾寒格이나 心寒格^{7)·18)}을 중심으로, 熱痰方^{6)·19)}, 君火方, 相火方²⁰⁾, 火鬱方^{3)·21)} 등을 사용할 수 있다.

治驗例 7의 환자는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신경과약을 복용하였는데 주소증은 불면증, 心悸怔忡, 胸悶, 煩熱感, 驚悸, 面赤, 上熱感, 眩暈, 下肢無力, 慢性結膜炎, 眼瞼赤爛, 手顫症 등이 있고, 그 외 항상 얼굴은 붉고 쫓기는 듯 초조해 하였으며 매일 같은 말을 反復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있었다. 《校勘舍巖道人鍼法》에서는 “內經曰…冒昧, 躁擾, 肘腫疼痠, 氣逆之相火³⁾”라고 하였고 《舍巖鍼灸正傳》에서는 “不成一寢, 白睛甚青, 惟獨好夫好男, 罵詈不絕⁶⁾”라고 하여 임상에서는 癲狂, 恐惶障礙, 不眠症, 躁鬱症, hysteria 등에 應用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神科에게 주로 應用할 수 있는 처방이다. 또한 眼瞼赤爛을 치료하기 위해 熱痰方을 병용하였고, 心寒格 膽正格 등 神科에게 주로 應用할 수 있는 처방으로 치료하였다. 자침 후 불면증을 비롯한 여러 증상이 호전되고 소화력이 호전되는 등 호전반응을 보이며 감정적으로 다소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양약을 너무 오래 복용하였고, 양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고령이고 가정적으로도 불안한 환경이 바뀌지 않아 치료에는 한계가 있었다.

血科는 얼굴이 삼각형이나 상중하로 생긴 계란형이다. 실제로 혈과는 滋養하는 血의 속성 때문에 順하고 자상한 경향이 있다. 血科는 이렇게 血을 모으려고만 하고 흐트릴 줄 모르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木의 승발하는 氣勢로 조화를 맞추는 地積象으로 成形한 것으로 보인다¹¹⁾. 主된 病理는 地積象의 속성에 따라 너무 아래로 뭉치면 瘀血과 下血이 생기고 너무 升發하면 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대표적인 증상은 九竅出血과 瘀血, 血虛證이다. 따라서 기본처방은 血虛를 補하는 肝正格을 중심으로 損血方, 心寒格·脾寒

格·心脾寒格²², 小腸正格, 小腸寒格, 瘀血方, 衄血方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치험례 8의 환자는 일단 股關節을 중심으로 膽經 라인으로 痛症이 있어 3회 膽正格으로 자침하였으나 증상의 개선 없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다. 환자가 血科이며 人中이 짧았으며²³ 생리양이 많아 힘들어하여 小腸正格으로 바꿔 자침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통증이 완화되고 소화장애 및 피로감 등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9월 10, 17, 24일은 痛症이 좌우로 이동하여 脾正格²⁴으로 자침하였고 이후 좌측만 아파 小腸正格으로 주로 자침하면서 補血養筋하기 위해 肝正格을 추가로 자침하여 좋은 효과를 볼수 있었다.

이상의 치험례와 같이 形象醫學理論을 이용한 진단은 어느 經絡에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고, 臟腑의 寒熱虛實을 보다 빠르고 쉽게 진단할 수 있으며 때로는 일반 臟腑辨證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거나 놓치기 쉬운 변증을 쉽게 변별할 수 있다. 이에 舍巖針 운용 시에 임상에 활용도가 높았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V. 요약

1. 形象醫學에서는 사람을 얼굴형태에 따라 精·氣·神·血과로 耳目口鼻의 기능에 따라 魚·鳥·走·甲類로 분류하며, 이러한 분류에 따른 臟腑의 특성을 舍巖鍼 운용에 활용하면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다.
2. 魚類는 水의 氣運이 많아 水體라고도 하며 腎臟이 발달하여 腎臟과 관련된 병이 오기 쉽다. 그 本治가 補精補氣이며 주로 腎正格을 운용하고 腎陽虛衰인 경우 腎熱格, 腎陰虛인 경우 腎寒格을 쓰며 精血의 虧損이 심한 경우 肝正格도 운용할 수 있다.
3. 鳥類는 火의 氣運을 많이 받아 火體라고도 하며 心臟이 발달하여 心臟病 신경성 질환이 잘 온다. 그 本治가 滋陰降火며 心臟의 陰血을 補하고 火를 내리는 心寒格을 위주로 하여, 心火를 瀉하면서 陰血을 보해주고 神志를 안정시키는 心勝格, 心氣가 부족한 경우 心正格, 心膽이 모두 虛한 경우 膽正格을 운용할 수 있다.
4. 走類의 木의 氣運이 많아 木體라고도 하며 肝이 發達하여 肝과 관련된 병이 잘 온다. 그 本治가

靑熱瀉濕, 滋血養筋이므로 肝正格을 주로 운용하고, 肝火가 動하거나 肝實證이 나타난 경우 肝寒格이나 肝勝格을, 肝氣가 亢進으로 인해 脾氣가 虛해져 있는 경우 脾正格을, 습열이 너무 盛한 경우 大腸正格을 운용할 수 있다.

5. 甲類는 金의 氣運이 많아 金體라고도 하며 肺가 발달하여 肺와 관련된 병이 잘 온다. 그 本治가 解鬱消痰이므로 肺正格을 통해 補肺順氣하며 鬱症이 심한 경우 肺勝格으로 통해 消痰시켜주고 氣鬱方으로 解鬱하기도 한다.
6. 精科는 그 특성상 精의 漏泄에 의한 증상 및 精不足, 陽虛證狀과 精의 과도한 凝集에 의한 濕熱이 기본 병리이며 기본처방은 腎氣를 강화하는 腎正格을 중심으로 하여, 腎熱格·腎寒格 등을 변증에 따라 운용하며 濕熱이 성한 경우 大腸正格·脾勝格 등 濕熱을 다스리는 처방과 脾正格, 濕痰方 등 濕痰을 다스리는 처방이 운용될 수 있다.
7. 氣科의 기본 病理는 氣鬱, 氣滯에 의한 九氣, 七氣, 中氣, 梅核氣, 不眠症 등 신경성 질환이 많고 특히 여자의 경우 손발과 하복부가 차고 대소변이 안 좋으며 癥瘕, 痙攣 등의 질환이 많다. 또한 지나친 發散으로 인하여 氣虛證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기본처방은 氣鬱方, 痰飲方, 痰眩方, 氣嗽方, 肺勝格, 三焦正格 등이며, 氣虛證이 나타나는 경우 肺正格을 사용할 수 있다.
8. 神科의 기본병리는 七情鬱結이나 痰火, 火盛陰虛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驚悸, 怔忡, 健忘, 不眠, 癲癇, 癲狂 등이다. 따라서 기본처방은 心寒格, 心勝格, 心正格, 膽正格, 脾寒格을 중심으로 熱痰方, 君火方, 相火方, 火鬱方 등을 사용할 수 있다.
9. 血科의 기본병리는 瘀血 및 출혈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九竅出血과 瘀血, 血虛證이다. 따라서 기본처방은 肝正格, 損血方, 心寒格·脾寒格·心脾寒格, 小腸正格, 小腸寒格, 瘀血方, 衄血方 등을 사용할 수 있다.

V. 참고문헌

1. 조세형. 舍岩針法の 體系的 研究. 서울 : 성보사. 1987 : 27-30.

2. 대한형상의학회편. 芝山形象醫案. 초판. 서울 : 지산출판사. 2003 : 21, 27, 1440, 1466.
3. 김달호. 校勘舍巖道人針法. 초판. 부산 : 도서출판 소강. 2006 : 159, 253, 261, 269, 337, 1220, 1556.
4. 박인규. 八象論. 서울 : 대한형상의학회. 2005 ; 176.
5. 허준. 對譯東醫寶鑑. 초판. 경남 : 동의보감출판사 2005 : 29, 54, 1251-2.
6. 정호영. 舍巖鍼灸正傳. 대구 : 행림서원. 2011 : 38, 60, 101, 130.
7. 김관우. 舍岩鍼法病證論. 초락당. 2009 : 65-66, 97, 110.
8. 李經緯. 中醫大辭典. 북경 : 인민위생출판사. 2004 : 1669.
9.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 초판. 서울 : 지산출판사. 1999 : 34, 209.
10. 대한전통한의학회 편. 芝山先生臨床學特講 III. 초판. 서울 : 지산출판사. 1999 : 403.
11. 백근기. 精氣神血科의 形象에 대한 研究. 대한형상의학회지. 2005 : 259-60, 261-2, 263, 265.
12. 은종원. 兒童青少年期 情緒障礙의 形象醫學的 原因 및 相談事例考察. 대한형상의학회지. 2011 ; 1 : 13.

VI. 각 주

1. 관골이 크면 뼈대가 굵은 것이고 精髓가 부족하기 쉬우므로 補精시켜주는 處方이 필요하다.
2. 心神俱虛方: 大敦·少衝(復溜)補, 太白·太溪瀉.
3. 《東醫寶鑑·毛髮門》에 보면 눈썹을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肝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눈썹이 뻗은 사람은 木氣가 旺盛하여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든 경우 肝을 너무 써서 肝이 虛해지기 쉬운 것으로 본다.
4. 形象醫學에서는 얼굴의 주름을 통해 五臟의 虛勞를 診斷하는데 山根部位-肝虛, 눈꼬리-心虛, 입 주변-脾虛, 이마部位-肺虛, 耳輪部位-腎虛로 진단하여 해당부위에 주름이 많이 보일 경우 각각 해당장부의 正格으로 치료한다.
5. 腎正格은 腎陽虛와 腎陰虛를 구분하지 않고 腎虛諸般病證에 주로 運用된다. 金生水의 작용을 극대화 하여 腎氣를 補한다. 《校勘舍巖道人鍼法》에서도 遺精을 腎虛로 보고 腎正格을 用하였다.
6. 腎陽虛의 증상이 주로 나타날 경우 腎熱格을 應用한다. 八味地黃丸은 精科의 주된 처방이다.
7. 腎陰虛의 증상이 주로 나타날 경우 腎寒格을 應用한다. 六味地黃丸은 正과외의 주된 처방이다.
8. 精科는 凝集力이 지나칠 경우 濕熱에 의한 病證이 잘 발생한다. 《동의보감·精門》에 濕痰이 스며들어 遺精이 되는 경우 加味二陳湯을 복용한다고 되어 있다. 大腸正格은 陽明經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濕熱을 제거하며 大腸主津의 작용을 통해 津液이 痰飲으로 化하지 않도록 하여 濕痰, 濕熱을 제거하는 좋은 처방이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大腸正格이 精科의 遺精, 夢精, 陽事不足 등 제반질환에 유효한 경우가 많았다.
9. 濕痰; 尺澤·陰陵泉 補, 太白·太淵 瀉
10. 氣鬱散之 實也. 少府·魚際 補, 經渠·三里 瀉. -肺勝格의 변용으로 經渠를 瀉하여 肺金을 소통시키고, 三里를 瀉하여 상역된 위기를 하강시키며, 폐의 수강작용을 원활히 하여 기의 율체를 사하는 작용을 한다. 기과의 기본방이며 활용도가 높은 처방이다.
11. 痰飲 肺濁. 少府·魚際 補, 尺澤·陷谷 瀉. -氣機의 循環障礙는 痰飲을 유발하므로 氣科는 다른 모든 科中 痰飲病이 가장 많다. 《醫學入門》에도 “氣病通用二陳湯”이라 하였듯 담음의 치료는 氣科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원칙이다.
12. 痰眩 肺實. 少府·魚際 補, 太白 太谿·瀉. -역시 肺勝格의 변용으로 痰飲으로 인한 眩暈症狀를 치료한다. 氣科의 境遇 眩暈뿐 아니라 두통 경향통 등 상부에서 일어나는 제반 痰飲證狀에 유효한 효과를 보인다.
13. 《의학입문》에는 “七氣積傷成咳嗽 痰涎凝結 或如敗絮 或如梅核 滯塞咽喉 咯不出嚥不下 婦人多有之”라고 그증상을 설명하였다. 기침여부에 관계없이 梅核氣症狀가 있을 때 쓰는 처방이다. 梅核氣는 氣科와 神科에 많고 특히 氣科가 가장 많다. 《사암침구정전》에서는 肺氣嗽라 하여 陰谷·經渠 補, 太白·太淵 瀉를 제시하였고, 《교감》에서는 氣咳라 하여 天突·陰谷·經渠 補 尺澤·陰陵泉 瀉를 제시하였다.
14. 김관우는 《舍岩鍼法病證論》에서 “三焦經은

- 相火의 主動經으로 氣의 昇降을 주관하므로 제반 鬱症에 대처하는 경맥으로 광범위한게 운용된다”고 하였고, 삼초정격으로 氣鬱症으로 인한 제반질환 즉 頭冒感, 梅核氣, 胸悶, 氣短, 浮腫, 腹部膨滿感, 排便不爽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15. 形象醫學에서는 관골이 특히 發達된 卯酉形氣科의 경우,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胸痛이며, 이때 쓸 수 있는 처방이 《東醫寶鑑·胸門》의 行氣香蘇散이다.
 16. 經驗上 氣科 환자의 경우 특히 魚際를 補하면 症狀이 바로 소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17. 神科는 思慮過度로 인한 陰血의 부족과 神志의 妄動이 주된 병리가 되는데 陰谷·少海를 補하여 陰血의 產生을 돕고, 神門·太白을 瀉하여 神志를 안정시키는 心勝格은 神科의 基本方이 된다.
 18. 김관우는 《舍巖鍼法病證論》에서 健忘을 心脾血虛로 보고 脾寒格이나 心寒格을, 혹은 脾寒格에 少海를 합하여 心脾寒格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陰血을 보하는 작용이 있는 三陰交·血海·地機 등을 병용하였다.
 19. 熱痰: “多煩熱 便燥結 頭面烘熱 或爲眼爛 痰色黃 喉閉 癲狂懊懣 怔忡驚悸 如畏人將捕”의 증상이 있을 때 熱痰方(大敦·隱白 補. 太白·神門 瀉)을 용한다. 다소 건장한 체격을 가진 神科의 痰火를 다스리는 좋은 처방이며, 神科뿐 아니라 氣科나 陽明形의 痰火로 인한 症狀에도 잘 듣는 처방이다.
 20. 김달호는 《校勘舍巖道人針法》에서 相火方을 中腕正, 大都·陰谷 補, 支溝·崑崙 瀉로 正義하면서 이중 大都는 다른 문헌에서 大敦과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관우는 《舍巖針法病證論》에서 治方の 의도로 보아 大敦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필자도 김관우의 의견을 따른다.
 21. 火鬱發之 實也. 陰谷·曲泉 補, 大敦·少衝 瀉 丹田瀉-心勝格 變方으로 變方心勝格에 少海를 曲泉으로 바꾸어 肝經의 鬱熱을 함께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처방이다.
 22. 모두 心經과 脾經의 陰血을 補하는 처방이다.
 23. 《東醫寶鑑·小腸》 脣厚 人中長 以候小腸-입술의 두께와 人中의 길이로 小腸의 상태를 살핀다: 小腸이 좋지 못하면 人中이 짧으면서 윗입술이 위로 들려 있다. 小腸正格이나 小腸寒格을 주로 사용한다.
 24. 통증이 좌우로 이동하는 것은 中心軸, 즉 中央土의 氣運이 나쁜 것으로 본다.